

국제수묵비엔날레 전주특별전

2월 2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진행... 해외 17명 작가 전주한지 이용한 작품 선보여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지난해 목포와 신안군에서 개최된 국제수묵비엔날레의 작품이 전주를 찾아와 오는 2월 2일까지 전당에서 특별전시가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국제수묵수다방(國際水墨數多芳)'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국제수묵비엔날레에서 선보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15개국 17명의 작가들이 전주한지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전당은 2017년부터 전주한지장인과 수묵 작가와의 만남으로 열린 세미나를 인연으로 각국의 작가들에게 전주한지를 보급하여 전주한지와 먹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전주한지의 세계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참여한 해외 작가들은 대부분 한지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작가들로 전당에서 이들에게 제공한 한지는 전주한지장 ▲김천중 ▲강갑석 ▲김인수 ▲최성일 장인이 제작한 전통한지이다.

전주시와 전당은 한지를 접하지 못한 해외 작가들에게 전주한지를 소개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전주한지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릴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전당 김선태 원장은 "해외 작가들이 전주한지 홍보의 필바탕이 되어 세계적으로 전주한지의 위상이 퍼지기를 기대한다"며 "전당 또한 국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지난해 목포와 신안군에서 개최된 국제수묵비엔날레의 작품이 전주를 찾아와 오는 2월 2일까지 특별전시가 진행된다.

외적으로 전주한지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규 프로그램 위촉교수 공모

25일~2월 8일까지 우편·이메일 제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2022년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위촉교수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성평등 전복, 행복한 여성과 가족'이라는 미션 하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격취득과정, 생활문화복지지원과정 등 4개 분야 60여 과목을 연 4회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우울증 환자는 총 69만명으로 2019년 대비 이미 83%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3월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우울위험군'으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코로나 불투명을 극복하기 위해 웰니스(Wellness)를 돕는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센터는 전북도민의 심리 방역을 거들기 위한 활동성 있는 활력 프로그램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이를 담당할 위촉교수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홈페이지, BWP, 스마트폰 사진 촬영, 제로웨이스트(친환경) 제품 만들기, 스피치 등이다.

지원서, 강의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센터 홈페이지(www.jwcre.kr) 공고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기간 내에 우편 및 이메일(edu@jwcre.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혹은 수료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출강하고 있거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혹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강의 경력 및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정정희 센터장은 "훌륭한 강사진과 양질의 강의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역량 있는 강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사용자 중심의 수요조사를 통해 우수한 교육과정을 발굴해 전북도민의 자기개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촉교수 공개 모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2월 1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jwcre.kr)나 교육사업팀(063-254-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이가운 개인전 'with 동그라미'展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며 문화 예술과 접목된 관광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전시가 확정된 9개팀 중 첫 번째로 일상 또는 추억을 솔방울에 빚대어 표현한 이가운 지역회가의 'with 동그라미'전이 11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때론 잘 보이는 솔방울들이 막상 찾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소소한 일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시계가 동그라미를 그리며 흘러가는 시간처럼 우리 일상의 동그라미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with 동그라미'展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성특유의 감성을 담아낸 한 폭의 동화 같은 작품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새만금 케이팝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새만금개발청,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케이팝(K-pop) 축제의 프로그램 발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새만금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하며, 새만금 케이팝(K-pop) 축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접수는 응모신청서 작성 후, 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공모 참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프로그램의 창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고, 심

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20만 원 상당의 상품), 우수상 2명(10만 원 상당의 상품), 장려상 3명(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결과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새만금 케이팝(K-pop)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새만금 케이팝(K-pop) 축제 누리집(www.kpopfestival.co.kr)과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지광 문화·관광콘텐츠 전담(TF)팀장은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만금 케이팝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며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관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흥선)은 11일 옛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을 새 단장해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약 25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개관 2주년이 되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1차관, 정현을 익산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박물관 개관식을 가졌다.

어린이박물관은 세계유산 미륵사지에 위치한 유적밀착형 어린이 전용 전시·체험 공간으로, 익산 지역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옛 전시관을 전면 새 단장한 어린이박물관은 연면적 2,527.48㎡ 규모로, 지상 1층에 어린이 박물관(1,507.88㎡)이 지하에 다목적 강당(629.42㎡)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다양한 전시와 함께 교육과 체험 공간도 갖췄다. 어린이박물관의 전시는 생방향 소통(인터랙티브), 홀로그램 등 디지털 콘텐츠 비중을 높여, 정보 문화 기술(ICT)에 능숙한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미륵사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물관의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곳이 지름 8.0m 규모의 원형 천장과 한쪽 벽면 전체를 활용한 로비의 대형 미디어 월이다.

또 지하에는 용도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구조를 채택한 강당이 들어서 있는데, 교육·학술행사는 물론 소규모 공연까지 가능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육선)은 2022년 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 팔복예술공장은 동시대 예술가에게 레지던시 환경을 제공해 미적 실천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을 증진하고자 2018년부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해왔다. 그간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국내외 40여명 예술가의 새로운 창작과 실험을 지원하며 입주작가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 힘썼다.

창작스튜디오 5기 모집 인원은 7명으로, 입주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개월이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7명에게는 창작스튜디오 제공, 비평가 매칭 등 창작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로록 발간, 전주 외 타지역 입주작가에게는 숙소도 제공된다.

한편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24세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인으로, 대학교 학부생과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예술가는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